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1, 소개 개요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강의를 하는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 개요입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로버트 피터슨입니다. 두 개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35년 동안 체계 신학을 가르친 후, 5년 전에 은퇴했고 여전히 활동적이며, 파트타임으로 글을 쓰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론에 대한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아들을 중심으로 하여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정 개요. 서론부터 시작하여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신비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신비의 개념 중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이며, 체계 신학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이해의 뿌리를 초기 교회로 추적하여 여러 강의에서 교부 그리스도론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호하지 않게 확언한 위대한 성명으로 마무리하고,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에 대한 교회의 고된 이해의 결과인 위대한 그리스도론 공의회를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영원 속에서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강의에서, 현대 그리스도론을 18세기 계몽주의에서 우리 시대까지 추적하고, 그 당시 초기 교회에서 어떤 다른 접근 방식이 취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계 신학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네 가지 위대한 구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저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중요한 교리와 결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성육신, 히브리서 1장과 우리 주님의 신성, 골로새서 1장과 그의 인성도 그의 신성에 대한 연구의 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연구할 것이지만, 네 번째 위대한 구절은 빌립보서 2장이며, 그것은 고전 텍스트, 그리스도의 두 상태, 굴욕의 상태와 승영의 상태에 대한 고전 텍스트입니다. 서론: 우선, 앞으로의 강의에서 사용할 체계적인 용어를 몇 가지 정의하겠습니다. 선재란 예수의 인성이 베들레헴에 있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시작되었지만,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는 영원토록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로써 인간 존재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가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기적이며, 하나님은 전통적으로 동정녀 탄생이라고 불리는 동정녀 잉태의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 잉태는 초자연적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동정녀 잉태를 의미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육신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의 범주를 살펴볼 것입니다. 즉, 그는 완전한 신이며, 아버지와 성령과는 다르지만 동등하며, 성육신의 결과로 그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은 우리가 연구할, 소홀히 여겨지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적이고 종교적 부정에 맞서 그의 신성을 올바르게 옹호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어떻게든 그의 신성을 침해하는 것처럼 그의 인간성을 잘못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그의 인격에 필수적이며,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둘 다 그의 구원 사역에 필수적입니다. 인격의 통일성은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가장 잘 이해되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오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고, 영원히 두 본성을 가진 항상 진실한 화신입니다. 두 상태의 교리는 종교 개혁 이후의 이해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수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는 땅에 계신 예수와 어떻게 다른지? 답은 그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오해나 오해입니다. 답은 두 상태의 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굴욕의 상태는 그의 잉태에서 매장까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매장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가 어차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묻혀야 했던 우리의 죄에 대한 끔찍한 고발일 뿐입니다. 그의 승영 상태는 그의 부활에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입니다. 그는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은 그 두 상태에서 매우 다르게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신학적 용어를 정의한 후 소개를 계속하면서, 저는 신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는 두 가지 큰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교리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에 대한 교리입니다. 저는 신비를 신이 계시한 역설, 모순, 신비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것이 신적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육신에서 우리는 결국 그의 부활 후에 아들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오순절은 성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인격은 분리될 수 없지만, 그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영광, 권능, 신성에서 동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다른 분기점은 세 인격이 서로 내주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 동시에 셋이 하나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철학적, 신학적 범주에 호소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셋 과 하나됨은 같은 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직면하고, 한편으로는 삼신론에서 그것을 부정하거나, 여러 신을 부정하거나, 이는 터무니없거나, 인격을 혼동하거나, 아들의 신성이나 성령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이 나쁩니다.

그러니 여기 신이 계시한 신비가 있습니다. 신은 하나 안에 셋이십니다. 테르툴리아누스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것은 고착되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 삼위일체, 셋이 하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또 다른 큰 신비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후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있는 아기는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역사 속에서 맡은 일의 일부를 살펴보고, 특히 오류에 대항하여 성경의 진리와 씨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삼위일체 신학으로서의 그리스도론의 많은 부분이 논쟁 신학이며, 이단에 비추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정교회의 경쟁, 공격, 투쟁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마침내 고백했듯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무도 당신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다락방 담화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은 아무도 그의 재림의 시간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정말 빨리 명확히 하기 위해, 그는 지상에 있는 동안 굴욕적인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논쟁할 것입니다. 그는 그의 모든 신성한 힘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을 케노시스 신학 또는 케노시스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것들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둬들여 양보하는 것은 그것들의 독립적인 사용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그는 지상 사역에서 때때로 그것을 행사했나요? 네. 항상? 아니요.

그는 이제 자신의 승영 상태에서 돌아올 시간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이 전지전능하면서도 무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는 전능하고, 그들이 그를 체포하러 올 때, 그는 내가 있다고 말하고, 그를 따라오는 자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십자가에서 약함으로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십자가에서 힘으로 죽고, 외치며, 다 끝났다고, 그가 이루려고 온 일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큰 신비는 삼위일체 교리와 두 본성을 가진 한 인격인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입니다. 개혁된 구원론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세 번째 신비는 처음 두 가지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필수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의 창조와 구원과 완성에서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 위대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신비합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양립론에 호소하고 싶지만, 그것은 다른 과정을 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혁 신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세 가지 신비를 믿지만, 이 신비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역동적인 상보성 사이에 두고, 교회의 두 가지 필수적인 신비 중 하나가 아닌 분명히 덜 중요한 신비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인격의 두 본성입니다. 체계 신학은 제 학문 분야이며, 이 과정의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신중한 연구, 즉 주해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이야기가 전개되는 대로 연구하는 것, 즉 성경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며칠 동안 강의하는 내용 중 가장 많은 것은 역사 신학에 관한 것인데, 이는 수세기 동안 성경 밖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기 이단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론에 분명히 중요한데, 그 중 일부는 오늘날 변칙적인 집단에 의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 신학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체계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사물을 모아 놓지만, 동시에 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아 놓으신 것을 분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20시간의 공식 과정을 수강했고, 그때 제가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구원 사역을 연구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즉 그리스도론을 연구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반대로 말할 것입니다. 내가 언급한 그 큰 네 구절, 네 가지 중 세 구절은 그의 구원 사역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1에서 18까지는 그렇습니다. 몇 구절 뒤에 세례자 요한은 예수를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닌 희생적 제사장적 모티브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골로새서 1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해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의 죽음을 그의 굴욕의 상태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히브리서 1장 3절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의 큰 주제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장에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희생에 대한 주제로, 그가 정결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죄를 정결케 하신 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체계 신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사물을 분리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인위적으로, 그리고 바라건대 도움이 되도록 분리한 것을 다시 조립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인격을 놀랍고,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묘사하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역사적 신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이 개념을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에 넣기 위해, 교회의 신학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특히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입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수년에 걸쳐 많은 책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클라스 루니아, *The Present Day Christological Debate*, 명쾌하고, 지나치게 학문적이지 않고, 자선적이고, 직설적이며, 견고한 유럽 복음주의자가 썼습니다.

데이비드 웰스 의 *The Person of Christ* 는 그가 쓴 문제에 대한 그의 특징적인 통찰력이 담긴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도널드 맥클라우드의 *The Person of Christ* 는 수년간 제가 신학교에서 그리스도론을 가르쳤던

교과서였습니다. 제럴드 브레이의 *Contours of Christian Theology*, IVP의 일부입니다.

Donald McLeod의 *The Person of Christ* 는 훌륭한 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최근에 Robert Lethem은 그리스도론이 매우 잘 정리된 체계적 신학을 썼으며, 일부 복음주의자들과 달리 그는 정확하면서도 건설적으로 비판적인 방식으로 현대 그리스도론을 다룹니다. Bob Letham의 *Systematic Theology* .

아주 최근의 책은 제 친구인 Stephen Wellum 이 쓴 것입니다 . 그는 Louisville에 있는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을 가르칩니다. Steve는 매우 재능 있는 사람이고, 그는 John Feinberg의 *Foundations of Evangelical Theology* 시리즈의 일부인 *God the Son Incarnate* 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 성경, 역사 신학, 체계 신학 측면에서 매우 잘 쓰여진 강력한 책입니다.

그는 스티브가 강력히 반대하는 실용적 케노시스에 대한 현대 복음주의 가르침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현대적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저는 그 반대에 있어서 그의 진영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모든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스티브에게는 그것이 실용적 케노시스인 것처럼 보이고, 저는 그 점에 대해 그와 동의합니다. 제가 언급한 마지막 책은 그저 환상적이고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여기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 편집한 책이에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Christopher Morgan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책을 공동 편집했습니다. 이 책은 신학과 공동체 시리즈의 일부로, 다른 모든 책에서처럼 성경 학자들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간증에 대해 글을 썼고, 역사 신학자가 체계 신학과 실천 신학의 한 장을 썼습니다. 모든 다른 측면, 에세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한 권의 책입니다. 책의 이름은 신학과 공동체 시리즈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그리스도론을 분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역사적 강의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을 분류하는 기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학은 하나 또는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고 웰스는 말한다. 신학은 신의 존재와 창조된 질서 사이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거나, 연속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신앙이 계몽주의 문화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자는 그것을 최소화한다.

물론, 몇 가지 예외가 있는 분류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구분입니다. 불연속성에 기반을 둔 신학은 자연과 초자연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그리스도론을 자연적이고 창조된 영역에 대한 신성의 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높은 그리스도론이며 , 심지어 더 오래된 단어-육신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의가 전개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조그마한 부분도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육체와 말씀-인간을 구별할 것이다. 그들의 세계관은 기적의 존재를 쉽게 수용하고, 신이 시작한 계시의 필요성을 확증한다. 연속성을 강조하는 신학은 초자연적인 것이 자연 속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인용 부호로 표시된 기적은 종종 자연법의 작용과 동일시된다.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일몰이나 봄에 자연이 재생되는 것이 기적으로 보이지만,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몰과 봄이 그저 일몰과 봄일 뿐이다. 인간 본성은 단순히 신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릇으로 여겨지고 신성이 주입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인간의 통찰력은 종종 신적 계시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성경 해석학에서 해석자는 종종

게시를 주기 위해 본문의 통제에서 자율권을 취하는데, 이는 동시대적이다

이 게시는 사건의 본질상 일반적으로 사회의 운영 규범과 일치하거나 적어도 양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상할 수 있는 바인데, 신과 인간 본성, 초자연과 자연 사이에는 형이상학적 또는 지적 단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과 창조된 질서 사이의 연속성이라는 틀에 있는 이 틀에서 그리스도론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모든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통된 기존 종교적 의식의 완성으로 묘사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론은 보통 단어 인간 패턴에 속하지만, 중요한 칼케돈적 요소가 손실된 패턴입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 구성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것은 보통 역사적 예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신성은 인간적인 것의 한계 내에서 구상됩니다.

물론, 이는 종종 신적인 것이 비범한 통찰력이나 심오한 도덕적 의식과 동일시되고 정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과 신 사이에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결합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지만, 오히려 후자가 전자에 주입되어 인간 예수 안에 분위기나 아우라가 창조되어 신이 그 안에 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성의 주제를 표현하는 신학은 거의 변함없이 그 전망에서 칼케돈적입니다.

현대의 지적 세계는 이 그리스도론이 확증되어야 할 맥락으로 여겨지지만, 이 그리스도론이 그 본질을 빌려서는 안 될 맥락은 아니다. 이 접근 방식의 주요 대표자는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교, 영국 성공회, 그리스 정교회, 보수적 개신교, 그리고 일부 신정교회 출신이다. 우리는 칼 바르트와 칼케돈과 매우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연속성에 기반한 신학은 칼케돈의 틀 안에서의 수정을 받아들이고 현대 세계가 맥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론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즉, 칼케돈 정교회의 수정 정도는 근대성이 신학적으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 정도에 정비례하여 달라질 것입니다. 이 접근 방식의 지지자는 오래된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으며, 랭던 길키, 에드워드 팔리, 고든 카우프만과 같은 사람들, 가톨릭 근대주의, 일부 바티칸 2세 이후의 가톨릭 신학, 과정 사상, 일부 해방 신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기점은 20세기에 하나님과 창조된 질서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신학 사이에서 다소 명확하게 확립되고 정의되었으며, 18세기 계몽주의의 직접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19세기에 공식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창조된 질서 사이의 연속성 또는 불연속성으로 그리스도론을 분류하는 이 모든 중요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것은 전문 용어로 더 대중적이고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좋아하는데,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과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계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에서 시작합니다. 맞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그들은 아들이 내려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시작하여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맞죠? 그것이 초기 교회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개혁자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청교도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 복음과 바울과 히브리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예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이제 저는 위에서 시작하는 것과 아래에서 시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구분합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는 의도적으로 아래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판넨베르크의 이해에서 역사를 다소 평가절하한 칼 바르트와 대조적일 것입니다. 저는 그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르트는 신과 창조된 질서 사이의 연속성에 대한 신학이었던 옛 자유주의에 반발했고, 불연속성을 강조했다. 그렌츠와 올슨은 20세기 신학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스탠리 그렌츠와 로저 올슨이 쓴 책인데, 그들의 주장은 과장되어 있는데, 신학이 하나 둘씩 나오는 것은 반작용이며, 그들은 초월성이나 임박성을 강조하고, 보통 둘 중 하나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지만, 모든 인물이 딱 들어맞지는 않을지 몰라도, 많은 인물이 들어맞는다.

더 오래된 자유주의, 임박함, 그래서 뛰어난 독일 신학자들과 유명인들이 아돌프 히틀러의 제3제국과 독일 민족주의가 신의 왕국이라는 가르침에 매료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바르트는 아홉, 라고 말했고, 그와 다른 사람들은 히틀러를 비난하고, 교실에서 히틀러 경례를 거부하고,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바르만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그 위대한 독일인들이 그것에 유혹당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유혹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자였고, 확실히 그 문화에 유혹당했지만, 바르트는 그가 배운 자유주의 신학을 전파하려고 했고, 그가 말했듯이, 그것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그는 성경의 이상한 세계를 발견하고 그것을 전파했고, 그 결과는 훌륭했습니다.

내가 바르티아인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는 모든 면에서 옳습니까? 아니요. 그의 제자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정통합니까? 아니요.

그는 모든 면에서 정통한가? 아니요. 그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사람인가? 그는 그의 시대에 새로운 신정통주의를 가져왔는가? 네, 그의 글에서 인용한 내용을 가지고 그의 그리스도론을 연구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명확히 하자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성경 사용은 그의 성경 관점보다 더 낮고, 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의 신학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 승리와 함께 절대적인 보편주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위로부터의 신학,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

위에서부터의 그리스도론, 아래에서부터의 그리스도론. 절대적으로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결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람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넬베르크는 상대적으로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즉, 그것은 논쟁이나 변증에 대한 당신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당신의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의 유럽적 맥락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 예수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는 예수의 죽음에서의 부활을 모호하지 않게 확인하는데, 그것은 그에게 궁극적인 시작점이 위에서부터였음을 증명하지만, 그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시작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미스터리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스터리를 인정하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오류를 비난하면 매개변수가 생기잖아요, 맞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론 중 일부는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보시다시피, 초기 교회는 때때로 예수의 인간성을 확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어떤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른 세상인가. 우리는 예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간성을 긍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수의 인간성을 온전히 긍정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예수의 인간성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긍정하는 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오류가 있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위에서 시작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확실히 옳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과 창조된 질서 사이에 불연속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창조된 질서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래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저기서 서두르시며, 즉시 이것을 하시고, 즉시 저것을 하시고, 즉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는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직설적이기는 하지만, 첫 구절에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제게는 위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논쟁 신학. 기독교 신학의 많은 부분은 논쟁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류를 사용하여 진실을 증진시키고, 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회가 '아니오'라고 말하게 하고, 가능한 한 '예'라고 말하려고 애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리스도론의 경우였고, 우리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훨씬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개요. 우리 주님의 신성에 대한 공격.

에비온주의는 유대교 종파로, 아마도 신약성서의 유대교도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훨씬 더 교묘한 부인이자 교회 내부의 기독교적 부인은 아리우스주의였습니다. 그는 예수가 첫 번째이고, 아들이 신의 첫 번째 피조물이며, 신이 그를 창조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특정한 신성한 활동을 확인하지만,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에비온주의뿐만 아니라 아리우스주의도 정당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이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 아리우스주의는 니케아에서 종식된 후 1세기 동안 용인되었고, 아마도 그곳에서 종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붙잡고 있는 데에 그저 불독에 불과했던 불쌍한 아타나시우스는 결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다섯 번이나 추방당했습니다. 다섯 번은 황제의 선호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왜 그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신학은 동양적이었고, 그래서 그의 구원 교리는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대체로 신격화의 관점에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신이 아니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그 구원론적 주장은 아타나시우스가 매우 확고하게 서게 했습니다. 그는 결국 승리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논쟁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이것들을 그의 신에 대한 것들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그의 신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그의 인성은 중요한 이유는 오직 신인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하늘에서 신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속죄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는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인류 중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결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지만, 신인 (God-man)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고통을 겪고 죽으셨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들 중 맏아들입니다. 그는 우리의 선구자입니다 .

그는 첫 열매 입니다 . 도케타주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도케티스트 들의 첫 번째 교회도 아니었고 , 도케 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도케오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 그것은 그리스어 단어입니다. 그것은 생각하다, 보인다, 나타나다를 의미하며, 다양한 이상한 영지주의에 공통된 것은 도케티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령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죠? 그는 실제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슬로건 중 하나를 인용하자면, 그는 땅 위를 걷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땅 위를 걸었습니다. 아니, 그는 신인이었고, 땅 위를 걸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또 다른 정면 공격이었고, 에비오나이트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가한 공격과 똑같았습니다.

도케타주의는 정면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매우 강력했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교회는 그 존재를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2세기의 철학적 흐름과 크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세기의 타임캡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영지주의자가 기독교인보다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한 교수를 위해 구매를 했습니다.

무섭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대한 또 다른 공격으로, 훨씬 더 미묘하다. 그것은 신이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요한복음 1:14를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하고 싶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아들은 인간의 몸을 취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 잠깐만요.

그리스 심리학에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에게 생명, 생각, 방향을 주는 활력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에서 단어, 로고스는 인간 예수의 영혼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일까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아니, 아니, 그것은 완전한 인간성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렸습니다. 나중에 카파도키아 교부 중 한 명이 가정하지 않은 것은 구원되거나 치유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는 몸과 영혼이 되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부분적인 육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또한 우리 주님의 단일성 에 대한 잘못된 공격이었습니다 . 그가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사람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성육신에는 신비가 있으며, 오류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떨어집니다.

유티키에스(Eutychies) 를 딴 유티 키우스주의(Eutychianism) 또는 단일성론(monophysitism) 은 또 다른 이름, 하나의 본성입니다. 단일성론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원한다면 하나의 자연주의(one nature-ism) 입니다.

혼란스러운 가르침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두 본성의 구별을 부인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단지 하나의 본성만 가졌습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반면 네스토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네스토리우스의 반대자 키릴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비난받았습니다. 아니요, 하이브리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에우티키에스 . 그것은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신성함에 그의 인간성이 흡수된 신성함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선포하고 오류를 비난함으로써 그것을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육신에 대한 공격.

입양주의라고 불리는 오류는 입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입양하여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성육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성육신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서 잉태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와서 초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동정녀의 태중에서 초자연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조심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인간성에 기여했는데, 이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기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녀의 DNA, 그녀의 염색체는 예수님의 피와 몸에 있었습니다.

케노니즘 은 성육신을 공격하는 또 다른 오류입니다. 케노시스는 그리스어이고, 카나오는 빌립보서 2장에서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우셨고, 우리는 나중에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연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신성한 속성을 소유했지만 인간이 되었을 때 그 중 일부를 벗어버렸다는 개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의 측면을 비우셨습니다. 이것은 오류이며, 정통파는 그가 한 인격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며, 항상 그러한 속성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더 복잡합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께 회색 물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역사적 맥락에서 구체화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실용적인 케노시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 예수님, 그들은 올바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성령으로만 기적을 행했다고 잘못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단인가요? 저주받은 교리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잘못된 교리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 제 친구 스티븐 월렘과 동의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끝내야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부의 그리스도론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니케아 이전에 먼저 이단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단을 다루게 됩니다. 유대교, 군주제 , 영지주의 이단.

교회가 그들과 씨름했고, 신이 논쟁 신학을 진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정통파는 순교로 가는 길에 이그나티우스를 추적합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변증가 중 한 명인 순교자 저스틴. 이레네우스, 테르툴리아누스 출신. 그런 다음 니케아 대공의회와 아리우스주의, 그 모든 논쟁과 싸움과 결과, 325년 니케아.

니케아와 칼케돈 사이의 발전과 거짓된 길에는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단일 신론이 포함됩니다 . 당신은 이단이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451년 칼케돈 대공의회, 그 신조와 거기서 나온 다섯 가지 필수적인 진리를 포함해서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 서론 개요입니다.